

## 라틴아메리카의 ‘뜨거운 냉전’과 종속의 심화 (1945-1975)\*

박 구 병  
아주대학교

박구병(2016), “라틴아메리카의 ‘뜨거운 냉전’과 종속의 심화(1945-1975)”,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7(3), 133-157.

**초 록** 두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 간의 군사적 현상유지와 이념 대립을 핵심적 특징으로 하는 냉전 시대에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은 장기 내전과 격렬한 내부 냉전을 겪었다. 이 지역은 미국과 유럽이 냉전, 긴장 완화, ‘신냉전’, 탈냉전 국면을 거치는 동안 군부쿠데타, 게릴라 세력의 무장투쟁, 반공주의적 군부 정권의 게릴라 진압작전 등으로 점철된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1975년까지 냉전 시대의 전반부에 초점을 맞춰 카리브 해의 소국 쿠바가 1960년대 초 이래 어떻게 냉전 대립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는지, 미국 정부의 라틴아메리카 군부 지원이 지역 정치의 구도와 성격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이념적 양극화가 민주주의와 실용적인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라틴아메리카 냉전 시대의 특성을 정리한다. 특히 냉전 시대의 이념 대립과 미국의 적극적 개입 전략이 20세기 초 이래 라틴아메리카가 겪어온 기존의 정치적·사회적 긴장과 분열을 더 복잡하고 극단적인 양상, 즉 ‘뜨거운 냉전’으로 치달게 하는 촉매제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냉전의 전반부에 쿠바 혁명 체제의 존재는 실제보다 부풀려져 냉전의 발화점으로 여겨졌고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치열한 내전이 발생했다. 아울러 미국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군부독재 체제의 종속은 물론 소련에 대한 쿠바 혁명 체제의 의존 역시 점차 뚜렷해졌다.

**핵심어** 전 세계적 냉전, 미국의 개입, 뜨거운 냉전, 쿠바 혁명, 국가안보론, 종속(대외의존)

\* 본 논문을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사의를 표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2015년에 출판된 7인 공저 『글로벌 냉전의 지역적 특성』에 실린 본인의 글과 유사한 제목을 지녔지만, 다루는 시기(냉전 시대 전반부)와 그 특성을 요약하는 주제어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 I. 들어가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실전 없는 상태에서 공세적 봉쇄 전략을 추진한 미국에게 20세기 후반의 냉전은 또 다른 세계대전이었다. 하지만 냉전이라는 표현은 미국이나 유럽 밖의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이 시기에 초강대국 사이에는 ‘긴 평화’로 간주되기까지 하는 부전(不戰) 상태와 안정성이 뚜렷한 반면 (Gaddis 1989), 제3세계 또는 남쪽의 저발전 지역(global South)에서는 독립 투쟁, 상이한 종족 간의 마찰, 불분명한 경계선 탓에 불거진 충돌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열전(熱戰)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권현익의 지적대로 이 지역에서 전개된 폭력적 양상의 냉전은 탈식민화 과정과 맞물려 있었고(권현익 2013, 228),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멕시코에 망명한 철학자 엔리케 두셀이 상기시키듯 지정학적 공간의 차이가 문제의 핵심이다.<sup>1)</sup>

노르웨이 출신의 냉전사가 오드 아르네 베스타(Odd Arne Westad)의 지적대로 냉전이 없었다면 오늘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꽤 다른 모습을 드러냈을 것이다. 그만큼 냉전이 제3세계의 진로에 끼친 부정적 영향력은 심각했다. 제3세계 지도자들은 대개 이데올로기적 선호에 따라 미국과 소련 중 한 편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 대다수에게 재앙이나 다름없는 발전 모델을 추종하곤 했다(Westad 2007, 3). 특히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 속에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데 실패하고 다수의 유혈 사태를 겪은 라틴아메리카의 냉전 시대는 ‘긴 평화’와 대비되는 격렬한 충돌, 즉 결코 차갑지 않은 폭력의 시기였다 (Joseph 2008, 3; Brands 2010, 1-2).

그러므로 냉전이라는 포괄적이지 못한 표현 속에 적절히 반영되거나 포착되지 않은 지역적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20세기 후반 라

1)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전쟁 중이다. 전쟁을 벌이는 이들에게는 냉전이지만 전쟁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는 열전이다. 무기를 만드는 이들은 평화로운 공존이라고 말하지만 무기를 사고 사용해야만 하는 이들에게는 피투성이의 실존이다. 전쟁터와 같은 공간, 전략·전술적으로 적에게 승리하기 위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리적 공간, 국경선이 제한하는 영역으로서의 공간은 뉴턴 물리학의 텅 빈 공간의 추상적 관념화나 현상학의 실존적 공간과는 매우 다르다”(Dussel 1996, 13).

틴아메리카가 겪은 갈등의 성격을 검토하고 유럽과 미국 중심의 냉전 이미지를 그야말로 전 세계적 냉전의 양상으로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라틴아메리카의 맥락에 대한 적극적인 고찰이라든가 프리드먼(Friedman 2003)이 제안한 대로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간의 관계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상기(想起)가 요구된다.<sup>2)</sup> ‘미사일 위기’를 바라보는 쿠바의 시각을 추적한 디에스 아코스타의 연구(Diez Acosta 2002)는 그에 해당하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그리고 조셉(Joseph 2008; Joseph 2010), 그랜딘(Grandin 2004; Grandin 2010), 스펜서(Spenser 2008), 브랜즈(Brands 2010) 등은 냉전 대립의 유산으로 보이는 닳아빠지고 이분법적인 해석의 패러다임을 넘어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특성에 착목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긴 냉전(long Cold War)이나 혁명의 세기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냉전의 기원을 시기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선행 연구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75년까지 냉전 시대의 전반부에 초점을 맞춰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지역에서 펼쳐진 냉전 대립의 양상을 정리하고 그 특성을 포착해보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뒤 30년의 기간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정치·외교적 흐름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 단위로서 적절할뿐더러 1968년부터 1975년까지의 국면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맞은 낭패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직접 반응하면서 소련이나 중국과 긴장 완화(détente)를 모색하는 시기였다(Westad 2007, 194). 쿠바의 혁명과 긴장완화 문제를 다루는 모레노와 라르다스도 1968-1975년을 그 이전이나 후속 시기와 구별되는 평화공존의 단계로 파악한다(Moreno and Lardas 1979, 40). 특히 1975년은 아메리카에서 미국과 쿠바 간에 짧은 유희 국면이 끝나고 대립과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연도이자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에서 군부 정

2) 이런 관점은 냉전의 패러다임과 이데올로기적 진영 논리를 재생산하는 이른바 ‘쿠바 문제 전문가(Cubanologist)’가 아니라 냉전의 틀에서 탈피해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쿠바 관련 주제를 다루려는 쿠바 연구자(Cubanist)의 접근방식이나 마 리펠리 페레스-스타블레, 아비바 촘스키 등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Pérez-Stable 1991, 250; Chomsky 2015, 5).

권의 잔혹한 인권 유린 사건이 빈발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맥락 속에서 카리브 해의 소국 쿠바가 냉전의 발화점으로 여겨지면서 대국의 외교 행태를 드러내게 되었는지, 라틴아메리카의 군부 정권을 지원하려는 미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개입이 지역 정치의 구도와 성격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특히 치열한 이념 대립이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에서 내실 있는 민주주의의 증진과 더 실용적이고 온건한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라틴아메리카 냉전의 경험이 전 세계적 냉전의 전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검토함으로써 냉전에 대한 기존의 불충분한 일괄적 이해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쿠바 혁명의 발발과 이념 대립의 격화

쿠바 혁명의 발발은 라틴아메리카의 이념 대립을 첨예하게 만드는 계기였다. 그 시기 이전에 미국은 ‘리우 협약’의 체결과 미주기구(OAS)의 창설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의 반공 안보 전선을 정비했다. 1947년 8월 말 브라질의 리우 데자네이루 근교에서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19개국이 체결한 ‘리우 협약’, 즉 미주상호원조협약의 제3조에 따르면, “어떤 아메리카 국가가 내외의 공격을 받을 경우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위협당한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었다(Holden and Zolov 2000, 188). 이 협약과 1948년 3월 미주기구의 확립은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냉전의 토대와 기본 틀을 마련해 주었다. 적어도 1898년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부터 미국은 아메리카 지역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과 소련이 결코 균형을 이룬 대립 관계에 있었다고 말하긴 어렵다(Friedman 2003, 625). 또 ‘미국의 뒷마당’이라는 수사가 드러내듯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들은 미국과의 비대칭적 관계에 묶여 있었다(스미스 2010).

냉전 시대에 라틴아메리카는 더 강력한 미국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과테말라에서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이 이끈 중도 민족주의 성향의 정부가 미

국제 기업 유나이티드프루트의 미개간지에 대해 수용(收用)을 추진하고 공산주의에 관대하다는 의혹을 사고 있을 때, 1954년 6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지원을 받은 과테말라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를 무너뜨렸다. 이로써 ‘선린(善隣)정책’을 접고 군사적 개입 정책을 재개한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1958년 무렵까지 내부 안보를 유지하려는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의 군대에 연간 1억 달러를 투입했다(Joseph 2010, 405).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54년 8월 쿠데타에 성공한 파라과이의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Alfredo Stroessner) 장군은 향후 35년 동안 억압적인 체제를 구축했다. 한편 미국의 과테말라 개입과 군부 쿠데타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체 게바라(Ernesto ‘Che’ Guevara)를 혁명가로 만든 결정적 전환점이기도 했다. 당시 과테말라에 체류하면서 이 개입을 목격한 체 게바라는 ‘양키 제국주의’와 라틴아메리카의 과두 지배 세력에 맞서는 무장투쟁의 불가피성을 신봉하게 되었다.

게릴라 무장투쟁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서 쿠바 혁명은 미국 주도의 반공 전선이 강화된 냉전 시대에 ‘미국의 보호령’에서 발발해 혁명적 민족주의 또는 사회주의 체제를 성립시켰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1953년 7월 26일 몬카다 병영 습격을 계기로 친미 독재자 풀헨시오 바티스타에 대한 투쟁을 선도한 혁명 세력은 사회주의 혁명을 표방했다기보다 호세 마르티(José Martí)의 이상과 실천을 계승하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쿠바 혁명은 무엇보다 탈식민화 운동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sup>3)</sup>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는 몬카다 병영 습격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렇게 역설했다. “몇 시간 뒤 우리는 승리를 거두거나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와 상관없이 (7월 26일) 운동은 끝내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긴다면 마르티의 희망은 좀 더 일찍 이루어질 것이다. 1868년과 1895년에 독립 운동

3) 호르헤 이바라(Jorge Ibarra)와 라몬 데 아르마스(Ramón de Armas) 같은 쿠바의 역사가들은 ‘백 년 동안의 투쟁’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1950년대 바티스타 독재 정권에 맞선 ‘7월 26일 운동’은 1850년대 나르시소 로페스(Narciso López)의 쿠바 해안 상륙 작전, 1868년 ‘야라의 함성’과 1895년 ‘바이레의 함성’, 그리고 1930년대의 저항을 계승하는 사건이었다.

을 도모한 이들처럼 여기 오리엔테에서 처음으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부르짖기로 하자”. 또 1956년 11월 쿠바 침투 작전을 앞두고 망명지 멕시코에서 발표된 ‘7월 26일 운동’의 선언에 따르면, 혁명 세력은 민주주의 회복, 민족주의, 사회 정의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민주주의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는 링컨의 공식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서 입법·행정·사법부의 상호균형에 입각한 공화정과 인민의 주권 회복을 의미했다. 그리고 민족주의가 뜻하는 바는 독립적인 쿠바의 재탄생이었다. 1902년 명목상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까지 토지, 광물자원, 공공서비스, 금융기관, 교통수단과 같이 중추적인 국가의 재산이 대부분 외세에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불공정한 종속 상태의 극복과 경제적 독립의 성취를 의미했다(Simons 1996, 362).

따라서 카스트로를 비롯한 소수의 초창기 혁명 분파는 동북아시아의 경우와 다르지 않게 “좌파이기 이전에 민족주의자”로 규정될 여지가 충분하다(마상운, 77 재인용). 그들은 1956년 말 가까스로 쿠바 동부 시에라 마에스트라의 산악지대에 유격근거지(foco)를 마련하고 정부군에 맞섰다. 독재 정권에 환멸을 느낀 대중을 포섭하고 게릴라 활동을 전개한 혁명 운동 세력은 1958년 12월 산타클라라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1959년 1월 초 아바나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사실 혁명의 성공 직후 미국의 외교 문서에는 쿠바에 대한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력이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인권 탄압 등 향후의 ‘단골 메뉴’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혁명의 최고 지도자 카스트로는 1959년 4월 미국을 방문해 부통령 리처드 닉슨과 회담하고 대학가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은 바 있으며 1959년 9월 말 혁명 정부의 외무부 장관 라울 로아 가르시아(Raúl Roa García)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쿠바의 독립을 재천명하고 냉전 대립에서 중립을 선언했다(Miller 1989, 69). 미국 국무부 관리들은 주로 쿠바가 어떤 경제 모델을 추구할지, 예상되는 정책 변화로 미국의 기업인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우려했고 쿠바의 사례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부추겨 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경제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했다(Chomsky

2015, 35, 58).

하지만 소련의 도움으로 쿠바에 1960년 2월 중앙계획기구가 설치되었고 쿠바 정부는 매해 수십 만 톤의 설탕 수출, 소련산 원유와 공산품의 수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또 1960년 6월 쿠바에 소재한 미국의 석유 회사가 소련산 원유의 정제를 거부했을 때, 쿠바 정부는 이 시설의 수용과 미국인 소유 전기·전화 회사 등의 국유화를 결정했다. 게다가 노골적인 반미 노선을 표방하진 않았을지라도, 혁명 정부가 사탕수수 위주의 농업 생산과 과두지배 세력 중심의 대농장 경영에서 벗어나려는 경제 체제의 변환을 모색할 경우 미국인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미국인 소유 자산에 대한 혁명 정부의 수용·국유화 정책에 맞서 미국의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1960년 10월 금수(禁輸) 조치를 단행해 혁명 정부를 압박했다. 또 1961년 1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쿠바와 외교관계를 끊은 뒤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의 모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쿠바와 단교했다.

곧이어 임기를 시작한 존 F. 케네디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냉전 대립의 면모를 그대로 반영했다. 1961년 1월 말 케네디는 전적으로 외교적 사안에 초점을 맞춘 이례적인 취임 연설을 남겼다. 그는 쿠바와의 단교 이후 긴장감이 감도는 국경의 남쪽에 있는 형제 국가들, 즉 라틴아메리카를 향해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을 이루는 데, 다시 말해 자유로운 이들과 자유로운 정부가 가난의 사슬을 끊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이웃에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지는 어떤 침략과 전복 행위에도 반대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진보를 위한 동맹’ 선언과 그것을 통한 개발 원조 정책은 쿠바의 존재와 소련의 영향력을 의식한 경제적 지원과 이데올로기적 개입, 특히 군대와 경찰의 강화를 의미했다(Gleijesus 2010, 346). 달리 말해 이는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를 통해 급진적 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 ‘진보를 위한 동맹’은 군사적 원조, 사회개혁, 경제 발전 등 세 가지 범주의 자금 지원으로 구체화되었고 예컨대 과테말라와 같이 공산주의의 위협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된 국

가에는 군사적 원조가 단연 최우선순위를 차지했다(Garrard-Burnett 2010, 190).

미국과의 단교 이후 대립의 최전선에 놓이게 된 쿠바는 냉전 중립을 표방한 원래의 의지와 상관없이 냉전의 발화점으로 간주되었다. 미국 정부는 1961년 4월 반(反)카스트로 세력의 히론 해안<sup>4)</sup> 침공 지원, ‘몽구스 작전(Operation Mongoose)’으로 대변되는 카스트로 암살 시도 등 강경책을 지속했다.<sup>5)</sup> 카스트로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편집장 이나시오 라모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1961년 11월부터 1963년 1월까지, 14개월 동안 쿠바에 대해 5,780건의 테러가 발생했는데, 그 중 717건은 우리의 산업설비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이로써 23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쿠바는 세계에서 테러리즘과 가장 많이 맞서 싸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라모네 · 카스트로 2008, 282).

1961년 4월 히론 해안 침공에 즈음해 카스트로는 쿠바 혁명을 “가난한 자의, 가난한 자에 의한, 가난한 자를 위한 민주적이고 사회주의적인 혁명”이라고 선언하고 나아가 1961년 12월 마르크스 · 레닌주의자로 자처했다. 이에 대해 1962년 1월 말 우루과이의 몬타텔레스테에서 열린 미주기구 회의는 “아메리카 대륙의 어떤 국가가 마르크스 · 레닌주의를 고수하는 것이 미주기구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고 공산권과의 동맹은 아메리카의 단합과 유대를 깨뜨리는 행위이므로 쿠바의 현 정부를 미주기구에서 배제”할 것을 결의했다. 14개국이 이 결의안에 찬성한 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에콰도르, 멕시

4) 이곳을 영어식으로 ‘피그스’ 만(灣)이라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에스파냐어 코치노(cochino)를 잘못 번역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을 뿐더러 정확히 말해 반(反)카스트로 세력이 상륙하려던 지점은 코치노스 만의 히론 해안(Playa Girón)이었기 때문이다. 쿠바인들은 이 사건을 ‘히론 해안 침공’이라고 부른다.

5) 2016년 8월 중순 중국의 신화통신은 47년간 권좌에 있었던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637회의 암살 공모와 164회의 암살 시도를 당고 살아남았다고 보도했다. 카스트로는 “올림픽에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기 중목이 있다면 단연 내가 금메달을 땀을 것”이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60813014042825>



코 등 6개국이 기권하고 쿠바만 홀로 반대했다(Jamison 1980, 343).<sup>6)</sup> 쿠바는 결국 아메리카의 다자간 안보 기구에서 축출되었고 쿠바 혁명이 지향하려던 진로는 적대적인 주변 환경에 막혀 굴절될 수밖에 없었다. 식민 지배를 벗어나 독자적인 발전을 모색하려는 쿠바나 다른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민족민주 혁명가들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매력적인 지침을 제공했고 소련은 강력한 후원자로 부상했다.

### III. 미국과 소련 간의 ‘미사일 위기’와 쿠바 주권의 손상

미주기구에서 축출되어 고립 상태에 처한 쿠바의 혁명 정부는 소련의 지원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 미국의 개입과 침공 지원에 대비하고자 소련의 미사일을 들여온 뒤 쿠바는 1962년 10월 핵전쟁 일보직전의 ‘미사일 위기’를 거치면서 냉전 대립의 단층선으로 부각되었다. 쿠바를 발판으로 삼아 라틴아메리카에서 세력 확대를 꾀한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회고록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소련은) 카리브 해 지역을 간섭하는 미국에 맞서 확고하고 효과적인 억제력을 확립해야 했다. 논리적인 해답은 미사일이었다. 미국은 항의할 수 없었을 것이다. 1950년대 말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소련을 겨냥해 영국, 이탈리아, 터키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했기 때문”이었다(개디스 2010, 111-112). 당시 쿠바에 주둔한 소련군의 지휘관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스크바에 자문을 구하지 않고 쿠바에 배치된 미사일을 사용할 재량권을 지니고 있었다(라모네 · 카스트로 2008, 304).

미국의 ‘검역’ 강행과 미 · 소 함선들의 직접 충돌에 의해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의 위험이 고조될 무렵 결국 미국의 쿠바 간섭 중단, 소련의 미사일 철수와 미국이 터키에 배치한 주피터 미사일의 철수 등에 관해 극적인 타협이 이뤄졌

6) 2014년 12월 미국과 국교 재개에 합의한 쿠바 정부는 축출된 뒤 처음으로 2015년 4월 파나마시에서 열린 미주기구 정상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재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해소 방식은 소련이 쿠바의 의사를 타진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 쿠바의 혁명 지도자들이 보기에 소련은 미국과 타협하기에 앞서 쿠바와 상의했어야 했다. 카스트로는 훗날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주권을 지킬 권리가 있다. 흐루쇼프는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미국이 터키에서 주피터 미사일을 철수하면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하겠다고 했다... 우리가 보기에 전혀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 우리는 분개했다”(라모네 · 카스트로 2008, 306).

쿠바 정부가 제시한 요구조건은 경제 봉쇄와 모든 경제적 압력의 중단, 무기와 폭발물 투하, 용병 침투, 간첩과 파괴 활동가 침투 같은 모든 전복 기도 행위의 중단,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기지에서 출항하는 해적 행위의 중단, 영공과 영해 난입의 중단, 관타나모 해군 기지와 미국이 점령한 쿠바 영토의 반환 등 5개 조항이었다(Diez Acosta 2002, 179-180). 카스트로는 쿠바가 협상에 참가했다 라면, 관타나모 만에 미국의 해군 기지가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고 미국이 쿠바 영공에서 첩보비행을 지속할 수 없는 등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카스트로의 시각은 ‘미사일 위기’를 냉전이 아니라 미국과 쿠바의 역사적 관계라는 틀에서 파악하려는 것이었다(Munton and Welch 2007, 9).

‘미사일 위기’를 통해 핵무기 취급 방법에 대한 합의의 필요성을 인식한 미국은 소련과 핵무기 경쟁 제한과 핵실험 금지를 논의하고 긴급연락망 구축, 민간 교류 증진 등을 추진했다(Hershberg 2010, 85). 미국과 소련 간의 위기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쿠바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적대적 대처, 즉 안보에 대한 위협은 그 뒤에도 줄어들지 않았다. 불가침 협정을 비롯해 쿠바의 안보를 보증하는 데 필수적인 5개의 요구 사항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Spenser 2008, 94). 달리 말해 초강대국과 제3세계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았고 카리브 해 지역은 긴장 완화의 흐름과 거리가 멀었다(Diez Acosta 2002, 197, 201; Harmer 2011, 39-46). 1970년대 초까지 카스트로 체제의 붕괴를 피하는 미국의 경제적 · 외교적 고립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카스트로는 소련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Diez Acosta 2002, 183, 200).

미국이 20세기 내내 라틴아메리카 군부독재 체제의 지원본부 역할을 맡은 반면, 혁명 이후 쿠바는 아메리카 전역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혁명의 수출 기지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카스트로만큼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연구를 자극한 인물은 없었다(Chomsky 2015, 4). 1975년까지 쿠바 혁명 체제는 이상주의적 환상(1959-1960), 갈등과 타협(1961-1965), 국제적 연대(1966-1967), 평화공존(1968-1975) 등 대외관계 전략의 네 단계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데, 쿠바 혁명의 지도자들은 줄곧 게릴라전을 가장 중요한 실천 전략으로 인식했다(Moreno and Lardas 1979, 40). 특히 체 게바라는 게릴라전쟁론을 통해 혁명의 객관적 조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리기보다 과감한 결단력을 지닌 소수의 전위 집단이 혁명적 상황을 이끌어낼 것을 촉구했고 1966년 1월 아바나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 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인민의 세 대륙 연대 기구 회의’에서는 “세계인들이 베트남의 길을 따라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제2, 제3, 수많은 베트남을 만들고, 인류의 커다란 적인 미국에 맞서 결속할 것”을 역설했다(Holden and Zolov 2000, 250-252). 쿠바 혁명의 성공은 군부 정권의 탄압에 반발한 과테말라의 저항 세력이 1960년 산악지대에 투쟁 거점을 마련하는 데 영감을 제공했다. 또 1961년 니카라과의 게릴라 조직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FSLN)’의 출범과 1964년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결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무장투쟁에 바탕을 둔 혁명 전략(foquismo)은 각 국가의 현실적 여건에 따라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웠고 1960년대 볼리비아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지역에서 소련의 평화공존론에 동조하는 공산당 지도부와 쿠바 혁명의 지지 세력 사이에 분열을 초래하기도 했다.

1962년 10월의 큰 위기를 넘긴 쿠바 혁명 체제는 대안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세 대륙 연대(tricontinentalismo)의 증진에 기여했다. 쿠바 혁명은 1950-1960년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강력히 전개된 탈식민화 투쟁과 공조했다. 앞서 언급한 ‘아프리카 · 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인민의 세 대륙 연대 기구 회의’는 공식적인 식민통치가 끝난 뒤에도 지속되는 초국적 자본과 서양 열강의 사회경제적 · 문화적 지배에 맞서 국제적 반제국주의 투쟁을 강조하면서 베트

남에 대한 지원을 결의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100개국 이상의 대표 600여 명은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라틴아메리카와 제3세계 다른 곳의 무장투쟁을 지지했다(Grandin 2010, 4).

체 게바라는 쿠바의 대표로 1964년 12월 11일 제19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상이한 사회·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 간의 평화공존이 시급한 선결 과제를 역설했다. 평화공존은 제국주의적 속성을 지닌 “강대국의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며 국가의 규모나 선행하는 역사적 상호 관계, 특정 시기 일부 국가 간에 발생하는 문제들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 게바라가 보기에 모든 국가가 기대하는 “평화공존의 형태는 자주 깃뚫히고” 각국의 의지를 우롱하는 방식으로 언급될 뿐이었다(Guevara 2003, 326). 또 그는 영국령 가이아나(Guiana), 캄보디아, 북베트남 등지에서 벌어지는 탄압과 계략, 독립의 지연과 “거세된 자유”에 대해 비판하고 쿠바는 독립을 쟁취하려는 이들에게 도덕적·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Guevara 2003, 328).

미국과 소련의 긴장 완화 국면에 쿠바는 국가 간의 연계를 중시하며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을 선택하면서도 여전히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적인 혁명 운동을 후원했다(Gleijesus 2010, 343; Harmer 2013, 69). 1968년 여름 소련의 프라하 침공에 대한 쿠바의 침묵 탓에 이런 국제적 지원과 파병을 소련의 대리인 역할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Miller 1989, 91),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쿠바의 앙골라 파병에 명시적으로 반대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쿠바의 아프리카 개입과 반식민 혁명 지원 정책을 쿠바 대외 정책의 독자성, 국제적 연대와 혁명적 이상주의의 표출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Miller 1989, 103; Neuner 2004, 118, 121; Gleijesus 2010, 343, 345; Chomsky 2015, 81). 1978년 쿠바계 미국인 정치학자 호르헤 도밍게스가 제시한 평가에 따르면, “쿠바는 소국이지만 대국의 대외정책을 지니고” 있었다(Domínguez 1978, 83).

#### IV. ‘국가안보론’과 라틴아메리카의 군부 통치

이에 맞서 냉전 시대 미국의 대(對)라틴아메리카 전략은 ‘또 다른 쿠바는 없다(No more Cubas)’로 요약할 수 있다(LeoGrande 2005, 26). 아메리카에서 가장 일관성 있게 지속된 국제 테러 활동은 미국 중앙정보국의 지원 아래 쿠바 탈출 망명자 조직이 쿠바 정부에 맞서 전개한 준군사적 공세였다(LeoGrande 2005, 30). 또 미국 정부는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에게 자유 시장 정책을 고수하고 미국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주며 마르크스주의를 거부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Dávila 2013, 13). 미국의 대(對)라틴아메리카 정책은 지역별로 달랐는데, 전술한 과테말라와 쿠바 외에 1965년 4월 도미니카공화국 침공과 군사적 점령에서 드러나듯 카리브 해 지역과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직접 개입을 마다하지 않았다(스미스 2010, 225-226). 반면 남아메리카에서는 초국적 기업, 라틴아메리카 각국 내 기업과 군부의 협력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쿠바 혁명의 성공과 확산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새로운 ‘국가안보론’에 힘입어 라틴아메리카 군부의 정치 개입 형태는 뚜렷하게 바뀌었다. 예컨대 브라질의 군부는 1945년과 1954년 두 차례의 쿠데타를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에 개입해 특정 민간 정치 세력을 지지한 뒤 병영으로 복귀하는 중재자의 역할에 그쳤으나 1964년부터 1985년까지는 직접 통치자로 나섰다. 정치학자 앨프리드 스테판에 따르면, 이 변화는 새로운 직업화, 즉 국가안보에 관한 직무 영역의 확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Stepan 1973, 52). 특히 쿠바 혁명 이후 국가안보의 영역이 확대되어 외부의 적뿐 아니라 내부 급진세력의 위협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식이 직업적 전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군이 정치에 개입할 여지는 한층 더 높아졌다.

1960-197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의 군부는 ‘국가안보론’을 채택했다. 이는 각국에서 군의 역할을 극적으로 확대했다. 1964년 정권을 장악하고 반공 전략을 실행한 브라질 군부의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국가안보론’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이 후원하는 반공 전략의 핵심이었다. 그 원칙과 논리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는 핵 시대 전 세계적 차원의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분석, 내부의 적을 상징하는 논리, 안보와 경제 발전의 결합 모델이 손꼽혔다(Garrard-Burnett 2010, 189). 군부의 승인으로 권좌에 오른 민간인 출신 홀리오 세사르 멘데스 몬테네그로 대통령의 임기(1966-1970)는 과테말라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일종의 시범 전시 기간이었다. 그의 임기를 포함해 1960-1975년에 과테말라의 수출 농업 부문의 실적은 ‘국가안보론’의 본보기인 칠레에는 못 미쳤지만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등의 수준을 상회했다(Garrard-Burnett 2010, 31).

미국 정부는 1964년 3월 브라질 군부의 조앙 굴라르(Joao Goulart) 민선 정부의 축출을 방조하거나 1973년 9월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의 인민연합 정부를 무너뜨린 칠레 군부의 쿠데타를 후원했다.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의 군부에 교육 훈련 과정, 자금, 장비 등을 지원하면서 각국의 군대를 반공 전선의 아성으로 재정비했다. 각국의 군부는 웬만한 발전론, 포퓰리즘, 민족주의적 경향의 정치 운동에 붉은 낙인을 찍으면서 억압적인 통치를 펼쳤다. 사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아옌데의 집권 이전인 1970년 9월 중순에 이미 “아옌데가 집권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든지 권좌에서 축출하려는” 중앙정보국의 공작을 승인했다(Kornbluh 2004, 37).<sup>7)</sup> 닉슨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지휘한 헨리 A. 키신저(Henry Kissinger) 국가안보수석보좌관은 아옌데에 대한 보이지 않는 봉쇄를 주도해 “칠레의 경제가 비명을 지르게 만들면서”(Grandin 2004, 191)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의 군부독재 체제를 미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매개체로 활용하려 했다(Dávila 2013, 17). 때로는 미국 정부 대신 포드, 국제전화전신(ITT), 제너럴 모터스(GM) 등 미국 기업들이 비밀경찰이나 준군사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대리인 역할을 맡았다(Dávila 2013, 15).

7) 공식적인 부인에도 나중에 공개된 여러 자료를 통해 미국 정부가 칠레 군부쿠데타의 설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칠레 관련 문서를 비롯한 미국 정부의 다양한 기밀 자료에 관해선 워싱턴 DC 소재 비정부기구 ‘국가안보기록보관소(National Security Archive)’의 사이트를 참조하라. “Chile: 16,000 Secret U.S. Documents Declassified”. <http://www.gwu.edu/~nsarchiv/news/20001113/>

1970년 칠레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무장투쟁과 다른 방식의 사회 변혁을 모색한 아옌데의 통치는 ‘사회주의로 향하는 칠레의 길(*la via chilena*)’로 알려졌다. 아옌데는 1971년 5월 21일 첫 번째 연례 의회 연설에서 “다양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회주의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 제도적 통로를 수립”할 것을 밝히면서 칠레가 걷고 있는 전인미답의 길을 “사회주의 사회로 향하는 제2의 이행 모델”로 규정했다. 그리고 필수적인 원칙으로 “합법성, 제도적 발전, 정치적 자유, 폭력의 예방, 생산수단의 사회화” 등을 제시했다(Debray 1971, 178-187; Allende 2003, 118-126). 이런 원칙에 의거해 칠레의 구리, 석탄, 강철 산업과 민간 은행 뿐 아니라 국제전화전신과 포드 등 일부 외국계 회사의 자산이 국유화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불만이 고조되고 경제 사정이 악화되었을 때, 미국 중앙정보국과 초국적 기업들은 1973년 9월 11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이 주도한 칠레 군부의 쿠데타를 후원했다. 그리하여 쿠바 혁명과 다른 방식으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성취하려던 아옌데의 희망은 좌절되었다.

쿠데타의 주역 피노체트는 반대자들에게 가혹한 철권통치를 펼치는 동시에 미국 유학파 경제학자들을 등용해 대외개방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동시에 피노체트의 군부독재 체제는 3,000건이 훨씬 넘는 인권 침해 사건을 양산했다. 이런 ‘불순분자’ 탄압이나 1975년 이후 더 치열해지는 게릴라 진압 작전은 미국의 매카시즘, ‘내부의 적’ 소탕을 꾀한 스탈린 시대의 정치 폭력과 더불어 대표적인 내부 냉전의 사례로 손꼽을 만했다(최승완 2009, 346-347). 반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납치와 고문은 쿠데타 직후인 1973년 9월부터 1974년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피노체트는 1974년 6월 ‘국가정보원(DINA)’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권력을 집중시켰으며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언론과 출판 매체들을 검열하거나 폐간했다. 옹호자들에게 피노체트는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칠레를 건져내고 경제성장을 이뤄낸 국가의 수호자였다. 하지만 피노체트의 개발독재는 ‘공산주의의 위협’뿐 아니라 칠레의 민주주의 전통을 파괴했고 칠레 사회에 지우기 힘든 상흔을 남겼다.

피노체트의 반인륜적 통치는 ‘콘도르 작전(Operación Condor)’의 일부였다. 1970년 11월 이래 남아메리카 여러 국가의 군부독재 정권이 공동으로 전개한 ‘콘도르 작전’은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혐의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대신 납치하고 고문하며 살해하기까지 하는 대륙 차원의 비밀 정보·작전 체제였다. 이렇게 ‘내부의 적’에게 가한 고도의 조직적 탄압(industrial repression)은 ‘국가안보론’의 폭력적 속성을 잘 보여주었다.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과테말라, 페루 등지의 반공주의적 군부 통치자들은 좌파 세력과 벌이는 ‘제3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겠다는 의도에서 국내의 반대파를 소련과 쿠바 같은 적대국의 사주를 받아 체제 전복을 노리는 ‘불순분자’로 규정하고 초법적 폭력의 기제를 확립하려 했으나 이는 여타 제노사이드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미리 계획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위법 행위였다(McSherry 2010, 109, 112).

## V. 쿠바 혁명 체제의 생존 노력과 대소(對蘇) 의존의 심화

미국의 단교 조치 이후 쿠바는 동서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이 되었고, 혁명 직후부터 쿠바를 떠난 바티스타 일파와 군 장교, 수십만 명의 중상류층과 전문 직업인들은 미국 플로리다 남부에 근거지를 조성하고 반공주의에 힘입어 확고한 정치적 지분을 유지하면서 혁명 체제와 ‘장거리 내전’을 벌였다(Jatar-Hausmann, 1999, 132; Neuner 2004, 125). 1962년 4월 민주당 상원의원 제임스 W. 폴브라이트는 카스트로가 이끄는 체제를 가리켜 “미국의 몸에 박힌 하나의 가시일 뿐이지 심장을 겨누는 단검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지만(스미스 2010, 219), 미국 정계의 보수 강경파는 ‘뒷마당’에 있는 적대 세력의 위협을 과대평가하곤 했다.

1975년 이전에 얼마간 변화가 발생해 미국과 쿠바의 관계도 긴장 완화의 가능성이 높아진 듯했다. 중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소련과 전략 무기 감축 협상에 나선 터에 미국이 쿠바와 적대 관계를 지속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1971



년 제임스 W. 폴브라이트, 프랭크 처치, 에드워드 케네디, 찰스 마티아스 등은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1973년 ‘수요회’로 알려진 하원의 공화당 의원 조직 역시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의 종식을 요구했다. 1974년 말과 1975년 초까지 쿠바를 방문한 일부 상하원 의원들은 쿠바 봉쇄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LeoGrande 1998, 70).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관한 여론은 1972년 2월 닉슨의 중국 방문 이후 두드러지게 바뀌어 1973년 미국인의 51%가 관계 정상화에 찬성한 반면, 반대 의견은 33%에 머물렀다. 제럴드 포드 행정부는 제3국에서 미국 기업의 자회사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금수 조치의 수준을 낮춘다든가 쿠바 정부와 공중납치 반대 조치를 협의하고 1975년 미주기구의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LeoGrande 1998, 71).

미국과 쿠바의 관계에서 짧은 혼풍의 시기를 대변하는 사건으로 쿠바 출신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루이스 클레멘테 티안트(Luis Clemente Tiant)의 가족 상봉을 꼽을 수 있다. 1940년 쿠바에서 태어나 1961년 5월 미국으로 건너간 티안트는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한 쿠바 출신 투수 가운데 최다승(229승)을 기록했다. 1971년부터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활약한 티안트는 특히 1975년 월드시리즈에서 출중한 기량을 발휘했다(Echevarría, 1999, 358). 티안트는 보스턴을 방문한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신시내티 레즈와의 첫 경기를 완봉승으로, 제4차전을 믿기지 않는 173구 완투승으로 장식했다. 티안트가 14년 만에 부모와 상봉한 뒤 15개월 간 보스턴에서 함께 지낸 시기는 미국과 쿠바 관계의 짧은 유화 국면과 일치했다.<sup>8)</sup>

8) 이 감격스런 가족 상봉 이야기는 197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 출신의 상원의원 조지 맥거번(George McGovern)이 쿠바를 방문해 카스트로에게 편지 한 통을 전달하고 특별 여행비자의 허용을 요청했다. 이 편지는 한 아프리카계 의원이 루이스 클레멘테 티안트를 위해 쓴 것이었다. 맥거번이 카스트로에게 “루이스 티안트를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카스트로는 “아버지인가 아들인가?”라고 대꾸하며 둘 다 안다고 답했다. 그리고 카스트로는 흔쾌히 티안트의 부모가 보스턴을 방문해 원하는 대로 오래 머물러도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1975년 8월에 티안트의 아버지 루이스 엘레우테리오 티안트(Luis Eleuterio Tiant)의 전례 없는 역귀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두 가지 사건으로 중단되었다. 그것은 1976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포드 행정부를 비판한 로널드 레이건의 공세와 쿠바의 앙골라 파병 조치였다. 서아프리카의 앙골라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자마자 내전에 휩싸이고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유지해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군대가 1975년 10월 이 내전에 개입해 국제 분쟁으로 확대되었을 때, 카스트로는 앙골라에 약 3만 6천 명의 병사를 파견했다. 이들은 1976년 3월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군대가 철수할 때까지 ‘앙골라인민해방운동(MPLA)’을 지원했다. 미국은 쿠바의 앙골라 철수를 양국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1977년 3월 앙골라를 방문한 카스트로가 밝혔듯이, 앙골라 파병은 “라틴 아프리카 국가”로서 쿠바의 역할, 달리 말해 쿠바와 아프리카 사이 역사적 연대의 표현(Neuner 2004, 124)이었지만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었다(LeoGrande 1998, 71).

쿠바 정부는 1970년 설탕 1000만 톤 수확 캠페인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공무원과 병사들의 휴가를 반납하거나 연기하고 술집을 폐쇄하는 등 분투했지만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다. 그 뒤 1970년대 소련은 국제시세보다 높은 고정가격으로 쿠바의 설탕을 구입하는 간접적인 설탕 보조금, 무역 적자, 기술 지원, 유럽 은행들의 자금 대출 시 쿠바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 군수물자 지원 등의 형태로 쿠바를 후원했다. 특히 소련은 쿠바가 수입하는 석유를 전량 공급했고 쿠바 설탕 생산량의 절반쯤을 구매했다(Miller 1989, 89).

## VI. 결론

라틴아메리카의 냉전 시대는 미국과 소련 양국 간의 군사적 현상유지와 대조적으로 기나긴 내전과 격렬한 내부 냉전이라는 특징을 선보였다. 1950년대

---

성(逆歸省)이 성사되었다. 1930-1940년대에 미국의 ‘니그로 리그’를 주름 잡던 전설적 투수 루이스 엘레우테리오 티안트는 15개월 동안 다시 미국에서 머물면서 아들과 지내다가 항암치료 끝에 사망했다.

중반 이래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전략과 그것이 유발한 긴장은 라틴아메리카 내부의 좌우 분열과 지역 간 갈등을 장기간의 무력 충돌로 상승시켰다. 동서 진영의 이념 대립과 반목은 결국 라틴아메리카의 냉전 시대를 부전 상태가 아닌 장기 실전의 시대로 바꾸고 취약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물어뜨렸다. 예컨대 과테말라의 내전은 1960년부터 36년 간 지속되었고 콜롬비아에서는 196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50년 이상 내전이 이어졌다.

좀 더 정확히 말해 냉전 시대의 이념 대립, 외세의 개입과 라틴아메리카 군부 지원은 이 지역이 겪어온 기존의 정치적·사회적 긴장을 극대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한 셈이다. 베스트가 지적한 대로, 제3세계의 시각에서 보면 냉전의 동기와 전개 방식은 식민 제국 팽창의 연장이나 저발전 지역에 대한 서양의 지속적 통제, 말하자면 ‘신식민주의’나 ‘신제국주의’로 인식될 공산이 컸다(Westad 2007, 5). 20세기 초 이래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적 팽창과 지역적 대응,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냉전 시대의 이념 대립을 계기로 더 치열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증폭되었다. 그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냉전 종식이 라틴아메리카의 장기적이고 복잡하게 얽힌 갈등을 끝낼 수 없었다. 그랜딘의 연구서(Grandin 2004) 제목 ‘마지막 식민주의적 학살’은 과테말라의 일부 지역에서 벌어진 원주민 학살의 성격을 요약한 것이었지만, 라틴아메리카의 냉전 시대 전반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확대 적용할 만하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동북아시아와 유사하게 ‘냉전 이전의 냉전’이 뚜렷이 존재했던 것이다(마상윤 2015, 73).

미국과 유럽이 냉전 대립과 긴장 완화 국면을 거치는 동안 라틴아메리카 곳곳에서는 군부쿠데타, 게릴라 세력의 무장투쟁, 군부의 게릴라 진압 작전이 끊이지 않았다. 그 중심에 카리브 해의 소국 쿠바가 있었다. 쿠바는 베스트가 강조하듯 냉전이 없었더라면 상당히 다른 현실을 겪게 되었을 가능성이 큰 사례로서 성공적인 탈식민적 저항과 미국의 개입이 어떻게 뒤엎히는지 잘 드러냈다(Westad 2007, 6). 미국이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아메리카의 다자간 안보 조직인 미주기구에서 1962년 초 쿠바를 축출한 뒤 쿠바 혁명 체제의 존재는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져 냉전의 발화점으로 여겨졌고 그 ‘붉은 위협’은

과대평가되었다. 하지만 쿠바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2년 가까이 적대감을 쌓아온 미국과 쿠바의 관계, 더 적절하게 1898년 이래 양국의 지리적·역사적 연계 속에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할 때, 흔히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대립이라고 하는 13일 간 지속된 위기관리의 일화로 부각된 1962년 10월의 '미사일 위기'는 매우 다른 면모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Friedman 2003, 626).<sup>9)</sup>

쿠바의 위협이 부각될수록 미국 정부가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에 설파한 근대화론과 발전론은 더 짙은 색채의 반공주의에 자리를 내 주었다. 그리하여 1975년의 유화 국면은 단명하고 말았다. 대신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2014년 12월까지 냉전 대립의 장기지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소련은 쿠바 혁명이 급진화의 길을 걷게 되면서 쿠바를 교두보로 삼아 라틴아메리카에서 세력 확대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쿠바를 단지 소련의 대리인이나 종속국으로만 간주하긴 어려웠다. 쿠바의 혁명 체제는 미국의 봉쇄정책이나 소련의 국제주의 노선의 수정 속에서 경제 모델 수립이나 대외 정책의 독자성을 유지하려 했다. 예컨대 1970년대 중반 앙골라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쿠바의 개입과 지원은 이상주의와 국제적 연대에 입각한 자발적 결정이었다. 결국 쿠바 혁명은 아프리카에서 강력히 전개된 탈식민화의 물결에 동조한 셈이었다.

그럼에도 1970년대 설탕 1,000만 톤 생산 캠페인이 실패로 돌아간 뒤 1975년까지 쿠바의 소련에 대한 경제적 종속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 내의 경제적 종속과 내용이 다르다 해도 그런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1975년 무렵에 미국의 개입에 반발하는 변혁 운동 세력에게 게릴라 전술과 무장투쟁이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으로 여겨졌지만(LeoGrande 2005, 26), 쿠바에 이어 1979년 7월 세습 독재자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데바일레를 축출하고 집권에 성공한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의 경우 1975년 이후 정치적 전술과 수사(修辭)에서 온건화가 뚜렷해졌다(Brands 2010, 266). 1975년

9) 자세한 사항은 '국가안보기록보관소'의 '미사일 위기' 발발 40주년 특집 사이트 [http://www.gwu.edu/~nsarchiv/nsa/cuba\\_mis\\_cri/index.htm](http://www.gwu.edu/~nsarchiv/nsa/cuba_mis_cri/index.htm) 를 참조할 것

이후 쿠바 혁명의 진로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구현보다 권력의 집중을 선택하고 대중 동원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고착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혁명-조국(patria)-피델(카스트로)’의 연계가 강화되었고 체제 반대자나 이탈자가 늘어나면서 ‘장거리 내전’이 굳어졌다. 1970년대 미국 정부는 ‘콘도르 작전’이라는 라틴아메리카 군부 정권의 초국적 연계 공작을 음성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냉전 대립을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받아들인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의 반공주의적 군부 정권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 이념적 억압을 강화하면서 반인륜적 국가 폭력을 자행했다.

### 참고문헌

- 권현익(2013), 「냉전의 다양한 모습」, 역사비평, No. 105, pp. 221-235.
- 마상윤(2015), 「글로벌 냉전과 동북아시아」,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글로벌 냉전의 지역적 특성』, 사회평론, pp. 67-107.
- 이냐시오 라모네 · 피델 카스트로(2008), 『피델 카스트로: 마이 라이프』, 송병선 옮김, 현대 문학.
- 존 루이스 개디스(2010), 『냉전의 역사: 거래,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진실』, 정철 · 강규형 옮김, 에코리브르.
- 최승완(2009), 「냉전, 또 하나의 세계 전쟁」, 김남섭 · 송충기 외, 『세계화 시대의 서양현대사』, 아카넷, pp. 329-378.
- 피터 스미스(2010), 『라틴아메리카, 미국, 세계』, 이성형 · 홍옥현 옮김, 까치.
- Allende, Salvador(2003), *Textos Escogidos*, Buenos Aires: Universidad Popular Madres de Plaza de Mayo & Revista América Libre.
- Armony, Ariel C.(2008), “Transnationalizing the Dirty War”, Gilbert M. Joseph and Daniela Spenser(eds.), *In from the Cold: Latin America’s New Encounter with the Cold War*,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134-168.
- Brands, Hal(2010), *Latin America’s Cold War*,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Chomsky, Aviva(2015), *A History of the Cuban Revolution*(second edition), Malden and Oxford: Wiley-Blackwell.
- Dávila, Jerry(2013), *Dictatorship in South America*, Malden and Oxford: Wiley-Blackwell.

- Debray, Régis(1971), *The Chilean Revolution: Conversations with Allende*, New York: Vintage Books.
- Diez Acosta, Tomás(2002), *October 1962: The 'Missile' Crisis As Seen From Cuba*, New York: Pathfinder.
- Domínguez, Jorge I.(1978), "Cuba's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 57, No. 1, pp. 83-108.
- Dussel, Enrique(1996), *Filosofía de la liberación*(cuarta edición corregida), Bogotá: Nueva América.
- Echevarría, Roberto González(1999), *The Pride of Havana: A History of Cuban Baseball*,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riedman, Max Paul(2003), "Retiring the Puppets, Bringing Latin America Back In: Recent Scholarship on United States-Latin American Relations", *Diplomatic History*, Vol. 27, No. 5, pp. 621-636.
- Gaddis, John Lewis(1989),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arrard-Burnett, Virginia(2010), *Terror in the Land of the Holy Spirit: Guatemala under General Efraín Ríos Montt 1982-1983*,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leijesus, Piero(2010), "Cuba and the Cold War, 1959-1980",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II. Crises and Détente*,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27-348.
- Grandin, Greg(2004), *The Last Colonial Massacre: Latin America in the Cold War*,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2010), "Living in Revolutionary Time: Coming to Terms with the Violence of Latin America's Long Cold War", Greg Grandin and Gilbert M. Joseph(eds.), *A Century of Revolution: Insurgent and Counterinsurgent Violence during Latin America's Long Cold War*,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1-42.
- Guevara, Ernesto Che(2003), "At the United Nations (December 11, 1964)", David Deutschmann(ed.), *Che Guevara Reader: Writings on Politics & Revolution* (second edition), Melbourne: Ocean Press, pp. 325-339.
- Harmer, Tanya(2011), *Allende's Chile and the Inter-American Cold War*,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_\_\_\_\_(2013), "Two, Three, Many Revolutions? Cuba and the Prospects for

- Revolutionary Change in Latin America, 1967-1975”,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45, No. 1, pp. 61-89.
- Hershberg, James G.(2010), “The Cuban Missile Crisis”,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II. Crises and Détente*,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65-87.
- Holden, Robert H. and Eric Zolov(eds.)(2000), *Latin America and the United States: A Documentary History*,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amison, Edward A.(1980), “Cuba and the Inter-American System: Exclusion of the Castro Regime from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The Americas*, Vol. 36, No. 3, pp. 317-346.
- Jatar-Hausmann, Ana Julia(1999), *The Cuban Way: Capitalism, Communism and Confrontation*, West Hartford: Kumarian Press.
- Joseph, Gilbert M.(2008), “What We Now Know and Should Know: Bringing Latin America More Meaningfully into Cold War Studies”, Gilbert M. Joseph and Daniela Spenser(eds.), *In from the Cold: Latin America’s New Encounter with the Cold War*,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3-46.
- \_\_\_\_\_(2010), “Latin America’s Long Cold War: A Century of Revolutionary Process and U.S. Power”, Greg Grandin and Gilbert M. Joseph(eds.), *A Century of Revolution: Insurgent and Counterinsurgent Violence during Latin America’s Long Cold War*,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397-414.
- Kornbluh, Peter(2004), *The Pinochet File: A Declassified Dossier on Atrocity and Accountability*, New York and London: The New Press.
- LeoGrande, William M.(1998), “From Havana to Miami: U.S. Cuba Policy as a Two-Level Game”,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 40, No. 1, pp. 67-86.
- \_\_\_\_\_(2005), “From the Red Menace to Radical Populism: U.S. Insecurity in Latin America”, *World Policy Journal*, Vol. 22, No. 4, pp. 25-35.
- McSherry, J. Patrice(2010), “‘Industrial Repression’ and Operation Condor in Latin America”, Marcia Esparza, Jenry R. Huttenbach, and Daniel Feierstein(eds.), *State Violence and Genocide in Latin America: The Cold War Year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pp. 107-123.
- Miller, Nicola(1989), *Soviet Relations With Latin America, 1959-1987*, New York 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reno, José A. and Nicholas O. Lardas(1979), “Integrating International Revolution and Detente: The Cuban Case”,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6, No. 2, pp. 36-61.
- Munton, Don and David A. Welch(2007), *The Cuban Missile Crisis: A Concise History*,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euner, Thomas(2004), “Cuba and the Armed Conflicts(1956-1989): Local Actor or Caught Between Bipolar and Colonial Patterns of Politics”, *Revista de Historia Actual*, Vol. 2, No. 2, pp. 111-125.
- Pérez-Stable, Marifeli(1991), “Review: The Field of Cuban Studies”,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26, No. 1, pp. 239-250.
- Simons, Geoff(1996), *Cuba: From Conquistador to Castro*, London: MacMillan Press Ltd.
- Spenser, Daniela(2008), “The Caribbean Crisis: Catalyst for Soviet Projection in Latin America”, Gilbert M. Joseph and Daniela Spenser(eds.), *In from the Cold: Latin America's New Encounter with the Cold War*,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77-111.
- Stepan, Alfred.(ed.)(1973), *Authoritarian Brazil: Origins, Policies, and Futu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Westad, Odd Arne(2007),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New York 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박 구 병

아주대학교  
kbpark@ajou.ac.kr

논문투고일: 2016년 11월 11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19일



# The ‘Hot Cold War’ in Latin America and Its Deepening Dependency(1945-1975)

**Koo Byoung Park**

Ajou University

Park, Koo Byoung(2016), “The ‘Hot Cold War’ in Latin America and Its Deepening Dependency(1945-1975)”,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7(3), 133-157.

**Abstract** During the Cold War era characterized by military status-quo and ideological hostil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Latin America persistently witnessed a series of intense armed confrontation and proxies for the rivalry of two superpowers. The longevity and intensity of Latin America’s hot Cold War were an outgrowth of its long-running internal conflicts, the continuing tension between U. S. expansionism and Latin American nationalist response, and bitter ideological strifes. This article tries to arrange these peculiar features of Cold war era in Latin America by examining under what circumstances Cuba, a small Caribbean island, has been considered as a major flashpoint since the early 1960s, and the U. S. government sponsored covert operations of subversion and anticommunist crusade of Latin American military regimes, and how ideological extremism and polarization of the era blocked the continent’s possibilities of substantial democracy and moderate social change. It pays special attention to how East-West ideological hostility and the U. S. intervention escalated the preexisting local tensions into long civil wars and devastating violence in Latin America during the first half of global Cold War(1945 to 1975). In the meantime, Cuban revolutionary regime as well as Latin American military dictators became more dependent on two superpowers, respectively.

**Key words** Global Cold War, U. S. Intervention, Hot Cold War, Cuban Revolution, Doctrine of National Security, Dependency